

Night Sky Courage

나는 도망치기로 하였다.



(주대리의 속마음)

게임 개요

하루의 끝, 어두운 밤하늘이나 노을이 지고 있는 저녁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다면 야근과 회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신이 싫어 지지만 거부 할 수 없는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회식을 하자고 붙잡는 상사들을 뿌리치고 술 한잔 하자는 동료들을 뿌리치며, 끝나지 않는 야근에서 도망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운이 좋게 회사에서 정시 퇴근을 하고 회식도 없어 즐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 자신의 시간을 보낼 계획을 세워도 갑작스러운 친구들의 연락으로 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도 종종 발생하고는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는 한숨을 쉬며 밤하늘을 올려다 보고는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가끔은 모든 것을 뿌리치고 집으로 도망가자는 용기가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를 수 없는 꿈이죠. 회식이나 야근 그리고 즐거운 자신의 개인시간을 방해하여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원인(인간)을 게임 안에서 라도 마음껏 패고 격파하여 직장인들의 스트레스가 조금이라도 풀렸으면 합니다..

해상도	960X540
게임 장르	2D 밸트스크롤 격투게임
지원기기	웹, 콘솔, 모바일

배경

'가족'회사 전략마케팅팀에서 5년째 재직중인 '주노중'대리.

주대리는 오늘밤도 회사 옥상에서 이미 어두워진 밤하늘을 올려다 보며 오늘도 도망가지 못한 자신의 신세에 한탄을 하고 있다.

한창 담배를 피고 있던 주대리는 이대로는 자신이 죽을 것 같아 몰래 도망가기로 결심한다.

밤하늘의 저녁하늘을 바라보며 샘솟은 용기로 회사에서 뛰쳐나온 주대리를 방해하는 모든 것을 격파하여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 계획하였던 즐거운 시간을 보내자.

게임 플레이

적

- 회사측
 - 회장님
 - 상무님
 - 부장님
 - 차장님
 - 과장님

- 입사동기
- 후배

2. 지인측

- 회사원 친구 A,B,C
- 만년 백수친구
- 대학 선후배 및 동기
- 동네 친구

아이템

- 맥주잔 : 맥주잔을 손에 들고 공격 할 수 있다.
- 맥주병 : 맥주병을 던져 멀리 있는 적을 공격 할 수 있다.
- 소주잔 : 소주잔을 던져 멀리 있는 적을 공격 할 수 있다.
- 탬버린 : 탬버린을 손에 들고 공격 할 수 있다.
- 마이크 : 마이크를 손에 들고 공격 할 수 있다.
- 서류뭉치 : 서류뭉치를 손에 들고 공격 할 수 있다.
- 결재판 :
- 커피 : 현대인의 생명수. 일정 시간동안 플레이어의 공격력을 높인다.

피드백 내용

하루하루 날짜를 변경하게 되어 어느 날은 회사 옥상, 어느 날은 회식장소, 어느 날은 길바닥에서 시작.

주류 종류를 차라리 먹어야 체력을 유지 및 버프를 하여 안 먹으면 줄어들어 죽는 것.

혹은, 일정 레벨에서만 등장하게 하여 먹고 공격력을 올린다.

그래서--- 커피를 HP 회복으로 설정.

- ➔ 하루하루 날짜를 변경 하는 형식이 아니라 벨트스크롤 형식으로, 하나의 레벨을 패스 후 다음 레벨로 진입하는 스테이지 방식으로 한다.

레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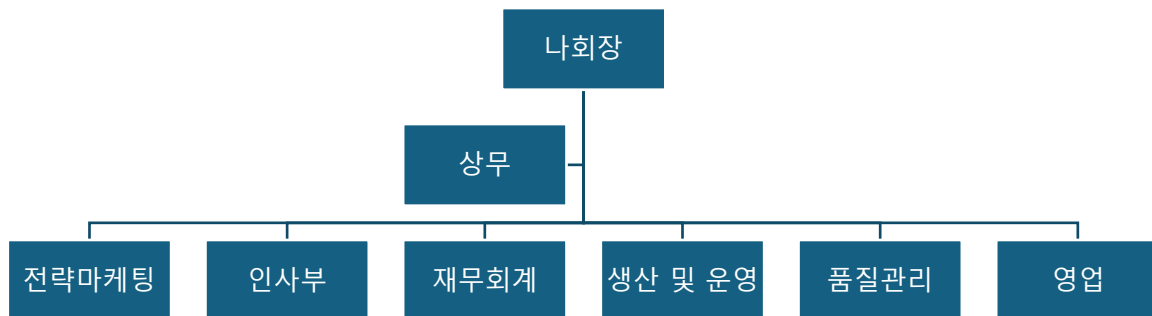
사운드

UI

배경 스토리

'가족회사'는 직원 80명이 근무 하고 있는 중견기업이다.

70대에 가까운 나회장이 젊었을 적 세운 회사로 작은 소규모로 시작하여 현재에서는 금속 가공 업계에서 알아주는 회사이다.



소규모로 시작한 회사를 잘 키워보고자 회장은 자신의 손발이 되어줄 친인척을 고용하여 회사를 운영하였고, 규모가 점점 커지며 새로운 직원들도 많이 늘게 되었다. 회사가 어느정도 자리잡자 회장은 하나 있는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주고자 아들을 인사부 말단 직원으로 채용하여 일을 배우게 하였다. 전략마케팅팀에는 입사 5년차인 '주 노중'대리가 있다.

주대리는 대리를 달고 나서부터는 매일 업무에 치여 정시 퇴근을 한 날이 한 손에 꼽을 정도였다. 업무시간이 끝나고 저녁 퇴근시간이 돌아와도 주대리는 퇴근하지 못하고 회사 밖에서 저녁을 먹고 사무실로 돌아와 남은 업무를 보는 것이 하루 일상이다.

저녁시간대의 회사밖의 거리에는 점심 시간대의 점잔한 거리와 반대로 화려한 간판이 퇴근한 직장인들에게 손을 흔들며 반겼고, 직장인들은 기꺼히 가게로 들어가 식사와 반주를 즐기며 하루의 고단함과 피곤함을 푸는 떠들썩한 거리였다.

오늘도 평소와 같이 주대리는 입사 동기인 품질관리팀의 이대리와 퇴근 후 회사 밖을 나서 식사를 하고 돌아왔다.

식사 후 잠시간의 휴식을 이용하기 위하여 건물 옥상 한켠에 배치되어 있는 작은 흡연장에서 주대리는 흡연을 하고 있었다. 주대리는 저녁식사때 옆자리에서 반주를 즐기는 회사를 상기하였다. 자연스럽게 오늘 회장님과 저녁식사를 하기 위하여 조기 퇴근한 부서장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들의 얼굴을 떠오르니 답답한 마음에 한숨과 함께 밤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저녁 밤하늘을 미동 없이 지켜 보던 주대리는 '집에 가고싶다' 라는 충동이 들었고 자연스럽게 도망을 가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피던 담배를 지저 끄고 사무실로 내려갔다

스토리

사무실로 돌아온 주대리는 컴퓨터를 정리하고 조용히 퇴근준비를 하기 시작하였다.

주대리의 부사수인 김계장은 사수의 눈치를 보느라 퇴근도 못하고 있었다. 퇴근 준비를 하고 있는 주대리를 불렀으나 주대리는 '집을 가겠다'는 한마디만을 남기고 짐을 챙겼다.

주대리의 행동에 당황한 전략마케팅팀의 과장과 팀원이 그를 붙잡으려 하였으나 이미 결심을 한 주대리를 막는 것은 어려웠다. 주대리를 막으려 팀원들이 가까이 갔으나 주대리는 자신을 방해하는 이들에게 주먹을 날렸다.

소란에 놀란 타 부서 직원들도 주대리를 막아보려 하였지만 차례차례 격파 당하였다.

차근차근 자신을 막는 직원들을 격파하고 회사 출입구로 걸어가던 주대리를 막아서는 것은 인사팀에 홀로 남아 업무를 보고 있던 회장 아들 이였다.

가까스로 회장 아들을 격파하였지만 쓰러졌던 직원 중 하나가 사무실에 배치된 소화기로 주대리의 뒤를 가격하였고 주대리는 그렇게 쓰러지게 되었다.

시끄러운 소음에 눈을 뜬 주대리는 여기가 어딘지 상황을 살피기 시작하였다. 주대리가 눈을 뜬 곳은 어느 식당의 룸 안이었다. 주대리가 눈을 뜨자 전략마케팅팀의 부장님이 말을 걸어왔다. 일이 그동안 많이 힘들었던 거냐, 술 한잔 하고 털어버리자. 하였고 주변의 부서장들이 눈에 들어왔다.

사무실에서 소란이 일어났을 때 타 팀의 사원이 부서장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렸었던 것이었고, 회장 아들을 격파하여 빈틈이 생긴 주대리를 덮쳐 기절 시킨 후에 부서장들이 있는 곳으로 옮겨져 온 것이었다. 회장과 상무는 흡연을 하러 간듯 자리에 없었다. 가만히 부서장들의 이야기를 듣던 주대리는 '오늘은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하였지만 그 누구도 주대리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은 없었다. 가만히 이야기를 듣던 주대리는 테이블을 엮고 다시 주먹을 휘둘렀다. 주대리는 오늘은 더이상 집을 향해 가려는 자신을 붙잡는 모든 것들을 용서하지 않기로 결심하였다. 부서장들을 처치하고 가게 밖으로 향하던 중, 담배를 피고 들어온 상무와 회장을 마주쳤고 그들을 격파한 주대리는 열심히 집으로 향하였다.

지하철에서 내렸다. 드디어 집이 코앞이었다. 출구에서 나와 잠시 밤하늘을 올려다 보고 심장의 두근거림을 즐겼다. 이제 집으로 향하려는데 뒤에서 누군가 주대리를 불렀다. 뒤 돌아보니 길을 물으려고 하는 외국인이었다. 길을 알려주었지만 잘 알아듣지 못하여 질문을 계속하는 외국인을 향해 다시 한번 주먹을 휘둘렀다. 집으로 향하는 길 사이비들의 방해와 포장마차에 수금을 하러 온 양아치들(잘못 부딪힘)을 격파하여 정말 집으로 얼마 남지 않은 길, 친구들이 편의점에서 편맥을 하고 있었다. 주대리를 발견한 그들은 반갑게 한잔 하자며 말을 걸었고 주대리는 마지막으로 주먹을 휘둘렀다.

엔딩 씬

집에 도착한 주대리는 평화롭게 저녁 밥을 먹고 씻고 난 후, 독서를 하며/게임을 하며/밀린 드라마를 보여 행복한 시간을 보내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과로로 인하여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가는 주대리가 꿈이었다.)